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영향요인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Parenting Stress and Related Factors of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with Infants

권미경(Kwon, Me Kyung)*

이 연구는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환경 특성과 양육과정에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 수준과의 관계를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의 2008년 자료를 활용하여 취업 중인 어머니 625명과 미취업 어머니 1,453명의 자료를 t 검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보통 정도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양육비용, 육아정보 선택,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대한 책임감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둘째, 영아의 양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미취업 어머니들이 취업 어머니들에 비해 양육 상황을 더 부담스럽게 인식하고 있다. 취업 어머니들이 더 건강한 심리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남편과 양호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양육에 대한 지식의 수준과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도 높아 현재의 양육 환경과 양육 과정을 더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셋째, 양육환경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양육스트레스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쳤다. 넷째, 미취업 어머니 집단에서만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

주제어: 영아 자녀,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취업여부

* 제1저자(교신저자): 승의여자대학 유아교육학과 전임강사, mkkwon@sewc.ac.kr

I. 서 론

부모됨이 부모에게 기쁨과 만족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됨은 급격하고 큰 변화로 ‘아버지’, ‘어머니’ 라는 새로운 지위를 취득하면서 그 역할에 따른 적응을 필요로 한다. 자녀양육은 부모에게 심리적 사회적 안정감을 주고 자신의 삶을 반성할 기회를 갖게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과 부담이 동반되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김선애·한유진, 2009). 특히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는 자녀의 출산으로 인한 가족의 변화 상황에서 새로운 부모 역할에 적응하고 있다. 이 시기에 어머니는 부모됨에 대한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끼며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가족을 둘러싼 상황 안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또한 이 스트레스의 수준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양육 과정에서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표출된다. 영아에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애착은 유아가 성장하면서 다른 사회관계를 형성할 때 준거가 되는 부분으로 유아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듯 가정이 일차적 사회화와 기본적인 애착 형성의 장소임 고려할 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자녀양육 과정의 스트레스 수준과 그 영향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줄이려는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왔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기대되고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어머니의 취업 상황에서의 양육스트레스를 분석한 연구(김기현, 2000; 김기현·조복희, 2000; 김선애·한유진, 2009; 박성옥, 1997), 취업의 구분 없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확인한 연구(오재연·유구중, 2007),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김기현, 1998)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양육 효능감(송연숙·김영주, 2008)이나 양육 태도(이주리, 2008), 자녀의 기질(남혜순, 2003), 발달영역 변인(이주옥, 2008)들과 함께 논의되어왔다.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환경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양육 행동과 특성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인이다. 일반적으로 취업 어머니는 취업으로 인해 자녀와 함께 하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고, 양육 대리자나 보육시설을 찾기도 힘들다는 측면에서 양육이 상당한 부담이다. 그러나 적절한 양육 대리자를 찾은 경우에는 어머니 본인은 양육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도 있다. 미취업 어머니의 경우는 자녀양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자녀양육에 대한 기대가 취업 어머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수도 있다. 즉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직업 대신 전적으로 자녀양육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취업 어머니와는

다른 양육기준과 스트레스 요인을 가지리라 예상된다. 또한 미취업 어머니는 가정 내에서 자녀양육을 전담하면서 남편이나, 가족들의 양육에 대한 지원이 취업 어머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렇듯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양육환경의 중요한 변인으로 어머니가 경험하게 되는 양육스트레스의 수준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도 분명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취업 어머니와 미취업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그 관련요인들을 확인함으로써 각각의 양육 상황에 따른 어머니들의 양육 필요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는 취업 어머니의 양육 어려움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출산을 저하에 사회적인 관심이 모아지면서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방안이 다면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을 위해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환경의 차이를 규명하고 그들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기초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1차년도 한국아동패널은 양육환경 실태를 Bronfenbrenner의 생태환경이론을 토대로 설계 조사한 것으로 영아와 그 어머니,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전국 규모의 표본이다. 이는 양육환경으로 고려되는 많은 변인들이 조사되어 다면적인 비교연구가 가능하게 하여 현재 사회의 양육 필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 연구는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되는 환경요인을 생태환경이론에 근거하여 양육자인 어머니 관련특성, 또 양육대상이며 주관계자인 자녀특성, 양육의 공동책임자이며 양육파트너로서의 아버지 관련특성, 사회의 가치관이 녹아든 자녀관과 양육 스타일, 양육지식, 사회적 지원 등의 실제 양육관련변인으로 구분하고 그 변인들이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려한다.

양육스트레스란 인생주기를 통해 유사한 변화를 경험하는 가족체계가 자녀의 출산으로 인해 직면하게 되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 스트레스이며(고성혜, 1994), 부모 역할 수행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와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김기현·강희경, 1997)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부모 자신의 심리적 안녕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태도,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은 부모로서의 적응의 정도를 보여주는 간접적인 지표이다.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리라 고려되는 변인 중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은 실제 양육경험을 구성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어머니 자신에 대한 주관적 지각과 가치의식을 의미한다. 이는 환경을 선택적으로 지각하고 경험하고 해석하여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며 자녀양육 과

정에서 자녀를 보는 관점이나 양육태도 뿐만 아니라 양육행동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자신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다(Bandura, 1977). 자기효능감이 강하면 문제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더하게 되지만 약할 경우에는 쉽게 문제 상황을 포기하기 쉽다. 자녀의 양육과정은 부모됨이라는 새로운 적응의 과정으로 쉽지 않은 문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자기효능감은 양육 과정에 경험하게 될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울은 여러 가지 불안, 슬픔, 분노 등 복합적인 부정적 정서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상태(Lazarus & Folkman, 1987)로 우울한 어머니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에게 거리감을 두고 더 부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일관되지 못한 양육태도를 보여 자녀들의 심리적 부적응이나 사회적 행동 부적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성연·도현심·정승원, 1996).

자녀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특성에 의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상 자녀의 특성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부모와 자녀관계의 산물이다(유호용, 2001).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자녀관련 변인으로 자녀의 성별과 기질을 고려한다. 자녀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들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강희경, 1998)와 관련이 보이지 않음을 보고하는 연구들(고성혜, 1994; 김기현, 2000; 유호용, 2001)로 그 결과가 일관되지 않다. 영아 남아의 경우 여아보다 신체적 활동성이 더 크므로 양육자의 주의가 더 요구됨을 고려하여 자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기질은 아동들이 태어나면서 지닌 선천적 속성으로 부모의 양육행동과 의미 있는 관련 보임을 선행연구들(박응임, 1995; 최영희, 1993)은 지적한다.

자녀양육과정에서 아버지의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가정 환경변화에 따라 가족의 지지체계가 축소되고, 자녀양육의 문제가 부부 공동의 과제로 여겨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핵가족화된 사회에서 어머니의 사회 참여 증가는 자연스레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를 기대하게 한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가족 내 부모역할 수행과정에서 비공식적인 지지체계(유호용, 2001)로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리라 예상된다.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선행연구들(홍성례, 1995; Abidin, 1990)은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과 어머니의 양육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배우자에 대한 만족감도 높여줌(이정순, 2003)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손이 많이 가는 영아 자녀를 둔 가정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는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취업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부의 정서적 유대가 부모 역할 수행에 지지적 기능을 담당함을 고려할 때 부부의 결혼만족 정도

와 부부갈등 정도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된다.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의 정도와 부부갈등의 정도는 부모 자신의 생활 뿐 만 아니라 자녀 양육 태도에 영향을 주어 자녀의 성장과 발달, 성격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 사회의 가치체계는 거대한 문화적 영향력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함으로써 자녀양육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되고자하는 동기는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등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하는 동기를 의미한다(유안진·김연진, 1997). 자녀를 갖고자하는 동기, 부모가 되고자하는 동기는 부모역할에 대한 태도와 양육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정서적 동기로 인해서든지 대를 잇는다거나 노후준비라는 도구적 동기에서 비롯되든지 부모가 되고자하는 동기는 부모의 양육 태도에 영향을 주어 자녀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양육 스타일은 양육과정에서 표현되는 자녀의 요구에 반응하는 정도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이다. 이는 자녀와 함께 놀고, 불편을 해결해주고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등의 도구적 지원과 애정적 관심, 자녀 기대의 융통성 정도, 자녀와의 공감 등의 정서적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육자로서의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도구적이든 정서적이든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리라 기대된다. 부모가 성장하면서 문화적 가치의 영향을 받아 형성해온 양육 지식의 수준은 자녀의 행동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참조의 틀로서, 자녀발달에 대한 준거가 되어 부모 자신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역할의 지원체계로서 사회적 지원은 자녀 양육 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이는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지지체계의 의미로 개인 간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에서 유발되는 보살피지고 있으며, 사랑받고 존경받고 있음에 대한 인식이며, 이는 생활의 변화의 결과로 가족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중재적 역할을 한다(강희경, 1998). 사회적 지원은 영아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적절한 부모 역할을 하도록 정서적 도움을 주며 양육을 위한 도구적 지원을 줄 수 있고 양육행동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전달함으로써 그 역할 수행과 스트레스 수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 살펴본 선행연구를 기초로 이 연구에서는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환경 특성과 양육과정에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수준과의 관계를 어머니의 취업 여부를 중심으로 확인하려한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의 수준에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고, 그들의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적절한 부모지원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어머니의 취업과 미취업이라는 양육환경에 따라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은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2> 어머니의 취업과 미취업이라는 양육환경에 따라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 자녀 관련특성(자녀의 기질), 아버지 관련특성(부 양육참여, 부부갈등) 및 양육 관련특성(자녀가치, 양육스타일, 양육지식, 사회적 지원)들은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3> 영아 자녀를 둔 취업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4> 영아 자녀를 둔 미취업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가 수준의 신생아 패널 구성을 목적으로 진행된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는 2008년 4월부터 7월 중 출생한 신생아 가구 중 층화다단계 표본추출방법으로 표집한 전국 규모의 표본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그 중 1차년도 최종 표본으로 선정된 2,078개 가구의 어머니들이다. 이들은 생후 4개월부터 10개월 정도의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들로 어머니 역할에 대해 적응이 시작되는 시기임을 고려할 때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그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기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양육스트레스의 비교를 위해 취업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취업 중인 어머니 625명과 미취업 어머니 1,45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와 더불어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의 수준, 자녀 변인으로 자녀의 기질을 측정하였고,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해, 부부갈등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정도를 아버지 관련특성으로 자녀가치, 양육 스타일, 양육 지식 및 사회적 지지 등을 양육 관련특성으로 측정하였다.

1)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도구는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PSI-SF; Abidin, 1990)를 기초로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34개 문항 중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레스'와 관련된 1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취업여부에 따른 비교 분석을 위해 취업어머니들만 답할 수 있는 '타인의 양육에 대한 부담감'의 하위항목을 제외한 것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10개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alpha = .84$ 이다.

2)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1) 자아존중감

Rosenberg(1986)의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장들은 역으로 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총 10개의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로 평정하는 4점 Likert 척도로 신뢰도는 $\alpha = .83$ 이다.

(2) 자기효능감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측정을 위해 Pearlin Self-Efficacy Scale(Mainieri, 2006)을 사용하였다. 원래 4점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질문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중 평정하는 5점 척도로 수정 사용하였고, 4개 문항의 신뢰도는 $\alpha = .81$ 이다. 문항의 질문내용이 '내가 가진 문제 중 몇몇 문제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와 같이 부정적으로 기술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효능감이 낮음을 의미한다.

(3) 우울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 경향인 우울 정도를 살피기 위해 Kessler et al.(2002)에 의해 개발된 일반인 대상 정신 건강 측정 간편형 도구인 'K6'를 사용하였다. 경험할 수 있는 우울 증상에 대해 5분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신뢰도는 $\alpha = .91$ 이다.

3) 자녀 관련 특성

자녀의 특성 중 자녀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Buss와 Plomin(1984)의

EAS(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 총 20개 문항 중 '우리 아이는 다소 감정적인 편이다.' 등의 정서성 관련 5개 문항과 '우리 아이는 매우 활동적이다.' 를 포함하는 활동성 관련 5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5점 Likert 척도이며 활동성을 묻는 문항 중 역으로 기술된 2개 문항을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반응이 격하고, 활동적인 기질 특성을 더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자녀 기질 신뢰도(Cronbach's α)는 정서성 문항들의 경우는 $\alpha = .73$ 이며 활동성 문항들의 경우는 $\alpha = .70$ 이다.

4) 아버지 관련특성

(1) 아버지 양육참여

아버지의 양육참여정도는 '아기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다준다.', '아기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갖는다.',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거나 목욕시키는 등의 일을 한다.', '아기와 자주 놀아준다.' 등으로 강희경(1998)과 유호용(2001)의 연구에 사용된 양육 참여정도를 반영하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정도가 높은 것으로 어머니가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항 간 신뢰도(Cronbach's α)는 $\alpha = .77$ 이다.

(2) 부부 갈등정도

부부간의 갈등 정도의 측정을 위해 Markman, Stanley와 Blumberg(1994)의 부부갈등척도를 번안한 정현숙의 6점 척도를 5점 Likert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 갈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8개 문항의 신뢰도는 $\alpha = .91$ 이다.

5) 양육 관련특성

(1) 부모가 되고자하는 동기(자녀가치)

부모가 되고자하는 동기는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하는 동기를 의미한다.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질문으로 대표되는 자녀가 지니는 정서적 가치에 대한 3개 문항과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등 자녀의 도구적 가치에 대한 4개 문항으로 구성된 총 7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는 이삼식 등(2005)이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를 위해 사용했던 것 중 출산 직후 영아 자녀를 둔 가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한 문항을 제외한 것이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서 자녀에게 부여하는

가치를 크게 여김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정서적 가치는 $\alpha = .62$ 이며, 도구적 가치는 $\alpha = .71$ 이다.

(2) 양육스타일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에 대한 척도로 Bornstein(1996)등이 개발한 PSQ(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의 총 17개 문항 중 영아의 부모 상황에 해당되는 '사회적 양육유형'만을 발췌한 6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자녀와 함께 놀고, 불편을 해결해주고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등의 도구적 지원과 관련된 3개 문항과 애정적 관심, 자녀 기대의 융통성 정도, 자녀와의 공감 등의 정서적 지원에 대한 3개 문항을 포함한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또는 도구적 측면에서 부모로서 자녀의 양육을 민감하게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항 간 신뢰도는 정서적 지원의 경우는 $\alpha = .74$ 이며, 도구적 지원은 $\alpha = .71$ 이다.

(3) 양육지식

어머니의 양육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MacPhee(2002)의 KIDI(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중 '발달원리'부분에 대한 13개의 문항이 사용되었다. 옳은 답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1점, 옳지 않은 답에 응답한 경우에는 0점을 부과하고 그 합계를 점수화하였다. 가능한 점수범위는 0점에서 13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양육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다 할 수 있다.

(4)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관계망에 대해 확인함으로써 한 가정이 외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는 부분이다. 어머니가 인식하고 있는 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재립과 옥선화(2001)가 사용하였던 도구로 어머니의 개인적 관계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도구적, 정서적, 사교적, 정보적 지원에 대한 인식이라는 네 가지 요인에 대한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이며 신뢰도는 $\alpha = .93$ 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따로 사는 시대, 친정 식구, 친척, 친구나 이웃 등과의 관계가 돈독함을 의미한다.

3. 자료의 분석

어머니의 취업과 미취업이라는 양육환경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수준과 고려되는 변인들에 대해 두 집단 평균에 대한 차이를 t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들을 도출하여 상관계수를 통해 다중공선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 결과 부부갈등 정도와 결혼만족도 변인 간 상관계수가 0.6이상으로 나타나 결혼만족도를 회귀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고려된 변인들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취업 어머니 집단과 미취업 어머니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영아 자녀를 둔 취업 어머니와 미취업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부모역할을 중심으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스트레스 항목별 평균과 편차를 제시하고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t test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영아 자녀를 둔 취업 어머니와 미취업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 비교

	취업 어머니 (n=625)		미취업 어머니 (n=1,453)		t
	M(SD)	M(SD)	M(SD)	M(SD)	
양육스트레스 전체	2.68 (.63)	2.77 (.61)	-2.628**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2.70 (.96)	2.76 (.92)	-1.250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지 자신이 없다.	2.43 (.87)	2.45 (.89)	-.376		
내가 부모역할을 잘못하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쳐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2.44 (.95)	2.44 (.98)	-.031		
아이로 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2.05 (.90)	2.24 (.96)	-4.175***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한다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2.21 (.98)	2.26 (.96)	-1.012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지 혼란스럽다.	3.32 (.95)	3.33 (.96)	-.242		
아이를 낳은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2.31 (.99)	2.45 (1.01)	-2.705**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3.43 (1.04)	3.58 (1.03)	-2.689**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3.04 (1.04)	3.12 (1.03)	-1.570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 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2.88 (.92)	3.02 (.91)	-3.126**		

** p<.01, *** p<.001

양육스트레스의 전체적인 수준은 두 집단의 어머니 모두에서 중앙값 3에 가까워 '스트레스를 종종 경험'하는 정도이다. 먼저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을 살펴보면, 두 집단의 어머니 모두 양육비용과 관련하여 가장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인다. 이는 자녀가 생김으로 발생하는 추가 지출이 가정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높은 항목은 자녀양육에 대한 육아정보 선택 대한 어려움이다. 영아를 둔 어머니들이 인터넷과 미디어 등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적절한 육아정보를 얻는 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어머니로서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대한 책임감에서도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두 집단의 양육스트레스의 전반적인 수준을 비교해보면 미취업 어머니 집단($M=2.77/SD=.61$)에서 취업 어머니 집단($M=2.68/SD=.63$)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2.628, p<.01$). 항목별로 살펴보면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다($t=-4.175, p<.001$)',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t=-3.126, p<.01$)', '아이를 낳은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t=-2.705, p<.01$)',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t=-2.689, p<.01$)' 등의 질문에서 두 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미취업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자녀 양육을 감당하면서 영아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취업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양육이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때론 벗어나고 싶은 때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2. 영아 자녀를 둔 취업 어머니와 미취업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자녀와 아버지 관련 특성 및 양육 관련특성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리라 고려된 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았다. 양육지식을 제외하고 고려된 각 척도별 전체 응답 점수를 문항수로 나눈 문항 평균값을 기준으로 t test를 통해 비교 분석한 결과가 <표 2>이다.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중 자아존중감은 4분 척도였음을 고려할 때 취업 어머니($M=2.53/SD=.20$)와 미취업 어머니($M=2.52/SD=.21$) 두 집단 모두에서 높았고, 자기에 대한 효능감도 긍정적이며, 우울 수준은 낮아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바람직한 심리 상태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울의 수준은 취업 어머니의 집단에서 미취업 어머니들에 비해 낮았다($t=-2.925, p<.01$). 영아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기질에 대해서는 정서적 측면보다 활동성 측면을 더 민감하게 인지하여 자녀가 항상 끊임없이 움직이고 활동적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미취업 어머니들이 '자녀가 잘 운다'거나 '보채며 운다' 등 정서적 측면의 기질을 다소 더 높게 인지하였다($t=-1.986, p<.05$). 아버지 관련특성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정도

는 두 집단 모두 중앙값 3이상으로 자녀의 양육에 아버지가 함께 참여하고 있음에 보통 이상으로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부부갈등이 정도도 낮아 양육 파트너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집단을 비교해보면 두 수준 모두에서 차이를 보여 자녀양육 과정에서 취업 어머니들은 아버지로부터 양육 조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높았다($t=3.623, p<.001$). 부부갈등의 경우는 미취업 어머니들이 취업 어머니들보다 더 높게 지각했다($t=-3.229, p<.001$).

표 2 취업어머니와 미취업어머니의 심리적특성, 자녀와 아버지 관련특성 및 양육관련특성

		취업 어머니 (n=625) M(SD)		미취업 어머니 (n=1453) M(SD)		t
어머니	자아존중감	2.53	(.20)	2.52	(.21)	1.329
심리적	자기효능감	2.17	(.65)	2.24	(.70)	-1.719
특성	우울	1.87	(.67)	1.98	(.72)	-2.925**
자녀관련	기질(정서)	2.67	(.59)	2.73	(.62)	-1.986*
특성	기질(활동)	3.76	(.52)	3.71	(.56)	1.950
아버지	부양육참여	3.69	(.77)	3.54	(.82)	3.623***
관련 특성	부부갈등	1.90	(.73)	2.03	(.78)	-3.229***
	자녀가치(정서)	4.52	(.51)	4.44	(.55)	2.922**
양육	자녀가치(도구)	2.94	(.77)	2.98	(.78)	-.862
관련	양육스타일정서	4.03	(.56)	4.03	(.54)	.096
	양육스타일도구	3.94	(.60)	4.12	(.56)	-6.300***
특성	양육지식	9.04	(1.85)	8.67	(2.15)	3.745***
	사회적 지원	4.18	(.60)	4.11	(.61)	2.307*

* $p<.05$, ** $p<.01$, *** $p<.001$

부모됨의 이유인 자녀의 가치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자녀의 도구적 가치보다는 정서적 가치에 더 의미를 크게 부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취업 어머니의 경우가 자녀의 정서적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t=2.922, p<.05$)을 보였다.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에 대해서 정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으로 구분해보면, 미취업 어머니들은 정서적 지원($M=4.03/SD=.55$)보다는 도구적 지원($M=4.12/SD=.56$)을 더 많이 하는 반면 취업 어머니들은 도구적 지원($M=3.94/SD=.60$)보다 정서적 지원($M=4.03/SD=.56$)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사이에 보이는 도구적 지원의 차이($t=-6.278, p<.001$)는 자녀를 주로 어머니가 돌보는 미취업 어머니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할 수 있다. 정답의 수를 합산하여 비교한 양육지식은 취업 어머니($M=9.04/SD=1.85$)들이 미취업 어머니들($M=8.67/SD=2.15$)보다 유

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t=3.745, p<.001$) 자녀 양육과 관련된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부분인 사회적 지원에 대해서는 두 집단의 어머니들 모두 4점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취업 어머니들의 경우 미취업 어머니들 보다 다소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t=2.307, p<.05$). 결과를 종합해보면 취업 어머니들이 미취업 어머니들에 비해 더 건강한 심리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남편이 양육을 지원해준다고 느끼며 갈등의 수준도 낮아 더 양호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양육에 대한 지식의 수준과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도 높아 영아를 기르는 양육 환경과 과정을 더 양호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영아 자녀를 둔 취업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아 자녀를 둔 취업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고려된 여러 변수들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양육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변인, 자녀 관련변인, 아버지 관련변인, 양육 관련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어머니의 나이, 학력 같은 사회 인구학적 변인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전반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회귀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단계에서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을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으로 선정하여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자녀의 성별과 함께 자녀의 기질을 정서성과 활동성으로 구분하여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갈등을 아버지 관련요인으로 선정하여 투입하였다. 결혼만족도를 고려하여 하였으나 부부갈등과 상관관계가 높아 배제하였다. 4단계에서는 양육 관련요인으로 자녀에 대한 가치와 양육 스타일을 정서적 측면과 도구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양육지식과 사회적 지원 등을 선정하여 투입하였다. 변인 간의 상관관계수는 0.01~0.60사이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었으며 Durbin-Watson 검정계수는 2.062로 나타나 2에 가까웠기 때문에 자기상관의 위험이 낮아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는 <표 3>와 같다. 1단계에서 고려했던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들은 양육스트레스에 대하여 37%($p<.001$)의 설명력을 지니며, 자아존중감($\beta=-.095, p<.01$)은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부적 영향력을 보이고, 부정적 자기효능감($\beta=.388, p<.001$)과 우울($\beta=.306, p<.001$)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단계에서 자녀 관련특성을 추가하여 함께 고려한 결과 설명력은 1.7%가 증가하였다.

자녀의 성별, 기질요인 중에서 정서와 관련된 자녀기질($\beta=.097, p<.01$)과 자녀의 성별($\beta=-.085, p<.05$)이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아버지 관련 특성을 추가하니 설명력은 단지 1.3%만이 증가하였고 아버지의 양육 참여정도와 부부갈등의 정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렇듯 설명력이 적게 증가함은 아버지와 관련된 특성들이 취업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함을 보여준다. 4단계에서 양육관련 특성으로 자녀가치와 양육 스타일, 양육지식, 사회적 지원 등의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하니 설명력은 7.1% 증가하여 전체 변량의 47.1%($p<.001$)를 설명해주었다. 양육 스타일이 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 영향력을 보여 정서적 지원($\beta=-.170, p<.001$)과 도구적 지원($\beta=-.093, p<.05$)에 민감할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덜 경험함을 보여준다. 자녀가치도 양육스트레스와 부적 영향력이 확인되어 정서적 이유($\beta=-.085, p<.05$)로 자녀를 두는 동기가 강할수록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 영아 자녀를 둔 취업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위계적 회귀 분석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b	β	b	β	b	β	b	β
어머니 심리적 특성	자아존중감	-.309	-.095**	-.342	-.105**	-.328	-.198**	-.227	-.070*
	자기효능감	.378	.388***	.375	.385***	.342	.277***	.302	.310***
	우울	.294	.306***	.271	.282***	.239	.197***	.190	.198***
자녀 관련 특성	성별			-.107	-.085*	-.112	-.089*	-.093	-.070*
	기질(정서)			.105	.097**	.101	.093*	.092	.085*
	기질(활동)			-.079	-.063	-.073	-.058	-.025	.020
아버지 관련 특성	부양육참여					-.057	-.070	-.029	-.036
	부부갈등					.076	.087	.070	.080
양육 관련 특성	자녀가치(정서)							-.103	-.085*
	자녀가치(도구)							-.052	-.064
	양육스타일							-.194	-.170***
	정서								
	양육스타일							-.098	-.093*
	도구								
	양육지식 사회적지원							.008	.022
							-.019	-.018	
중다상관 R		.609		.622		.632		.686	
R ²		.370		.387		.400		.471	
R ² 증가량				.017		.013		.071	
F		95.664***		51.051***		40.212***		30.282***	

* $p<.05$, ** $p<.01$, *** $p<.001$

4. 영아 자녀를 둔 미취업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아 자녀를 둔 미취업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양육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변인, 자녀 관련변인, 아버지 관련변인, 양육 관련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적었으며 Durbin-Watson 검정계수는 1.998로 나타나 자기상관의 위험이 낮아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영아 자녀를 둔 미취업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위계적 회귀 분석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b	β	b	β	b	β	b	β
어머니	자아존중감	-.143	-.049*	-.138	-.047*	-.154	-.052*	-.259	-.088***
심리적	자기효능감	.314	.354***	.289	.326***	.260	.294***	.234	.264***
특성	우울	.275	.320***	.256	.298***	.219	.255***	.182	.212***
자녀	성별			-.024	-.020	-.023	-.019	-.024	-.019
관련특	기질(정서)			.152	.155***	.151	.154***	.132	.134***
성	기질(활동)			-.068	-.062**	-.062	-.056*	-.025	-.022
아버지	부양육참여					-.116	-.154***	-.079	-.105***
관련	부부갈등					.041	.052	.037	.047
특성	자녀가치(정서)							-.005	-.004
	자녀가치(도구)							-.070	-.089***
	양육스타일							-.175	-.156***
양육관	정서								
관련특성	양육스타일							-.089	-.082**
	도구								
	양육지식							.000	-.001
	사회적지원							-.022	-.022
중다상관 R		.602		.622		.644		.686	
R ²		.362		.386		.415		.470	
R ² 증가량				.024		.029		.055	
F		227.120***		125.546***		105.933***		75.321***	

* p<.05, ** p<.01, *** p<.001

1 단계에서 고려했던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들은 양육스트레스에 대하여 36.2%(p<.001)의 설명력을 지니며,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자아존중감(β=-.049, p<.05), 자기효능감(β=.354, p<.001)과 우울(β=.320, p<.001)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며 자기효능감

이 낮아 자기 능력에 대한 기대가 적을수록, 또 우울의 정도가 심할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더 경험하는 경향을 보인다. 2 단계에서 자녀 관련특성을 추가하여 함께 고려한 결과 설명력은 2.4%가 증가하였다. 이는 자녀 관련변인의 설명력이 취업 어머니 집단의 경우 1.7% 증가함에 그쳤음을 고려할 때 미취업어머니들이 양육과정의 스트레스에 자녀로 부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경험함을 보여준다. 요인별로 보면 자녀의 성별, 기질요인 중에서 정서와 관련된 자녀기질($\beta=.155$ $p<.001$)과 활동성과 관련된 자녀기질($\beta=-.062$ $p<.01$) 모두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단계에서 아버지 관련 특성을 추가하니 설명력이 2.9% 증가하였다. 아버지의 양육참여정도가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적 영향력을 보여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한다고 인지하는 정도에 따라 미취업 상태의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수준에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는 취업 어머니의 집단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으로 미취업 어머니들이 자녀 양육에 아버지의 참여에 더 민감하게 인지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4 단계에서 양육관련 특성으로 자녀가치와 양육 스타일, 양육지식, 사회적 지원 등의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하니 설명력은 5.5% 증가하여 전체 변량의 47%($p<.001$)를 설명해주었다. 양육스타일은 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 영향력을 보였다. 이는 어머니가 정서적 지원($\beta=-.156$, $p<.001$)과 도구적 지원($\beta=-.082$, $p<.01$)을 자녀에게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덜 경험함을 뜻한다. 자녀가치 중 도구적 측면($\beta=-.089$, $p<.001$)만 양육스트레스와 부적 영향력이 확인되어 자녀를 두는 도구적 동기가 강할수록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는 경향을 보인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양육 상황을 양육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Bronfenbrenner의 생태환경이론을 토대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되는 환경요인을 구체화하고 그 변인들이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양육비용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영아 자녀로 인한 지출이 가정경제에 부담이 됨을 보여준다. 또한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육아정보 선택에서도 높은 스트레스를 보고하였다. 이 결과는 과학기술이 발달한 정보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접

할 수 있는 육아정보가 영아를 키우는 어머니들에게 유용한 측면도 있지만, 만약 어머니 자신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면 이것이 오히려 일종의 상대적 빈곤감을 유발하여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이해된다. 또 어머니로서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대한 책임감에서도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결과는 어머니들이 자녀의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양육스트레스의 전반적인 수준은 미취업 어머니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이 가정에서 전적으로 양육을 담당하면서 영아로 인해 외출이 어렵고, 친구나 친지 같은 사회관계들로부터 소외해지면서, 자녀 양육 상황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자녀의 연령이 유아기까지를 포함하는 선행연구(김기현, 2000)에서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게 보고된 경우와는 상반된 결과이나, 다른 연구(윤지원 외, 2009)에서는 미취업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게 보고되어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영아 자녀를 둔 취업모가 대리양육자의 도움을 받으며 직접 양육을 전담하지 않아 양육 자체의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로 보이며, 또한 사회적으로 취업모의 양육여건이 과거에 비해 향상된 일면을 반영한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리라 고려된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대체로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자기에 대한 효능감도 긍정적이며, 우울 수준도 낮아 바람직한 심리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들은 자녀의 기질에 대해서 정서적 측면보다 활동성 측면을 더 민감하게 인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어머니들은 아버지가 공동의 양육 책임자로 자녀의 양육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인지하며 부부갈등의 정도도 낮아 양육 파트너인 부모의 관계가 양호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두 집단 중 취업 어머니들이 미취업 어머니들에 비해 더 건강한 심리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남편이 자녀의 양육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고 느끼며 부부 갈등의 수준도 낮아 더 양호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양육에 대한 지식의 수준과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도 높아 현재의 양육 환경과 양육 과정을 더 양호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영아 자녀를 둔 취업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감소하지만 우울의 정도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도 증가하였다. 또한 자녀가 정서적으로 역동적인 기질을 보일수록 어머니는 양육에 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자녀의 정서성과 활동성 등과 관련된 기질이 부모역할로 인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관련을 보인다는 선행연구들(남혜순, 2003; 박성연·전춘애·

한세영, 1996)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부부갈등 정도는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정서적, 도구적 지원을 함에 민감할수록 또한 자녀를 두는 동기가 강할수록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넷째, 미취업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확인하니 고려했던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들은 양육스트레스에 대하여 높은 설명력을 지녔다. 미취업 어머니들은 취업 어머니들보다 양육스트레스에 자녀로 부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받았다. 이들 역시 자녀가 정서적으로 역동적인 기질을 보일수록 어머니는 양육에 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한다고 인지하는 정도에 따라 미취업 상태의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수준에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취업 어머니의 집단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으로 미취업 어머니들이 자녀 양육에 아버지의 참여에 더 예민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이는 역으로 어머니 혼자 양육을 담당한다는 인식이 클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더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에 기초하여 몇 가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우선 영아를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양육 부담감인 양육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자인 부모 개인의 심리 사회적 특성과 관련 있으며(권정혜, 1997), 어머니가 부정적인 정서성을 갖고 있을 경우 부정적인 면에 주목하여 자녀를 더욱 까다롭게 지각하므로, 스트레스를 보다 더 경험한다는 연구결과(Mash & Johnston, 1990)와도 일치한다. 또한 우울 성향이 강한 어머니가 불안이나 양육스트레스를 더 느낀다고 한 선행연구(고성혜, 1994; 권정혜, 1997)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양육지원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어머니의 심리적 부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접근함이 가장 효과적인 것임을 시사한다. 어머니들의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함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통한 접근이 적절함을 보여준다. 또한 양육관련 지식의 전달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행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어머니 자신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부분의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생태이론에 근거하여 단계적으로 투입한 회귀 모형의 결과는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중요한 양육환경 변인이 됨을 보여준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변인들과 양육스트레스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취업 어머니와 미취업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의 내용을 다를 수 있다. 취업 어머니의 경우는 사회생활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보상

등을 받을 수 있고 자존감이나 부부관계의 질이 향상되어 전반적 생활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문혁준, 2004). 미취업 어머니의 경우는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담감이 크고, 역할에 대한 보상이 적다고 느끼며(윤지원·황라일·조현하, 2009), 그로 인해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상대적인 좌절감을 경험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자녀나 아버지 관련변인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이 미취업 어머니들의 경우에 더 높았고, 양육 관련특성의 설명력은 취업 어머니 집단에서 미취업 어머니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취업 상황에서는 자녀관이나 양육과정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 반면 미취업 어머니의 경우에는 자녀와 남편 등 가족 내 변인들에 의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큼을 보여준다. 따라서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를 위한 지원을 마련함에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정책으로 접근해야할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자녀양육을 감당하는 미취업 어머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보육 지원정책들이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해야하는 취업 어머니들의 필요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들은 영아 자녀를 둔 미취업 어머니가 오히려 더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여러 면에서 확인시켜준다. 자녀양육으로 가정에서 고립감을 느끼며 자녀의 출산 전보다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가정양육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저출산 대책으로 다양한 보육 지원정책들이 마련되는 상황에서 실제 보육지원 수혜자인 어머니들의 양육 상황을 양육스트레스에 초점을 두어 고찰함으로써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양육환경의 특성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의의를 지닌다.

참 고 문 헌

- 강희경(1998). 3세 이하자녀를 둔 전문·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역할관과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고성혜(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2), 21-37.
- 권정혜(1997). 심리사회적 요인이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 산후우울에 대한 스트레스-취약성모델 검증. **한국심리학회지:임상**, 16(2), 55-56.
- 김기현(1998).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9), 49-62.
- 김기현(2000).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탐색. **한국생활과학회지**, 9(1), 71-84.
-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기현·조복희(2000). 맞벌이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 변인 탐색. **아동학회지**, 21(4), 35-50.
- 김선애·한유진(2009). 아버지의 양육수행,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지식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7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8(1), 55~64.
- 남혜순(2003). 어머니가 지각하는 유아의 기질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 **아동교육**, 12(2), 121-135.
- 문혁준(2004).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42(11), 109-121.
- 박성애·전춘애·한세영(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203-215.
- 박성연·도현심·정승원(1996). **부모-자녀관계: 생태학적 접근**. 서울: 학지사.
- 박성옥(1997).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한국생활과학회지**, 6(2), 37-45.
- 박응임(1995). 영아 어머니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송연숙, 김영주(2008).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비교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3(3), 181-203.
- 오재연·유구중(2007).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변인 탐색: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2(5), 73-94.
- 유안진·김연진(1997). **부모교육**. 서울: 동문사.

- 유호용(2001).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 및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윤지원 · 황라일 · 조헌하(2009).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5(4), 294-302.
- 이삼식 · 정윤선 · 김희경 · 최은영 · 박세경 · 조남훈 · 신인철 · 도세록 · 조숙경 · 강주희(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재림 · 옥선화(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지원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5), 49-64.
- 이정순(2003).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부부관계, 부모성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4(3), 97-106.
- 이주리(2008). 어머니의 수용-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모형분석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9(2), 57-71.
- 이주옥(2008).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의 비교. **영유아교육연구**, 11, 41-61.
- 최영희(1993). 기질과 환경 간의 “조화로운 합치”모델 검증연구(1): 조화로운 합치정도과 양육태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217-226.
- 홍성례(1995). 30대 남편의 가족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bidin , R. R.(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PSI/SF).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ornstein,M. H., Tamis-LeMonda, C. S., Pascual, L., Haynes, M. O., Painter, K. M. Galperin, C. Z. & Pecheux, M. G.(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347-367.
- Buss, A. H. & Plomin, R.(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adale. NJ: Eelbaum.
- Kessler, R. C., Andrew, G., Cople, L. J., Hiripi, E., Mroczek, D. K., Normand, S, T., Walters, E. E. & Zaslavsky, A.(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ies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32(6), 959-976.

- Lazarus, A. & Folkman, S.(1987). Transactional theory and research on emotions and coping.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1, 141-169.
- MacPhee, D. (2002).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 Survey of child care experiences & manual (2nd ed.)*. Unpublished manuscript, Colorado State University.
- Mainieri, T. & Grodsky, M.(2006).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Child development supplement: Users guide supplement for CDS-I. http://psidonline.isr.umich.edu/CDS/CDSI_UGSupp.pdf.
-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1994). *Fighting for your marriage*.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Mash, E. J. & Johnston, C.(1990). Determination of parenting stress: illustrations from families of hyperactive children and families of physically abused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 313-328.
- Rosenberg, M.(1986).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Schumm, W., Nicols, C., Schectman, K. & Grigby, C.(1983). Characteristics of responses to the Ke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by a sample of 84 married mothers. *Psychological Reports*, 53, 567-572.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fants' mother's parenting stresses and their environmental factors. The participants were 625 employed and 1453 non employed mothers from the Korean children panel in 2008.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d hierarchical regression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infant mothers experienced the medium level of parenting stresses. They reported the high level stresses in the parenting costs, the selecting parenting information, and the responsibility in their child's emotional stability. 2) The non employed mothers perceived more difficulties in the parenting situations than the employed mothers. The employed mothers perceived their environment and their parenting itself in positive way. They were in the good psychological conditions, having a well relationship with the husbands. They also had more knowledge in the child rearing and social supports. 3) The mother's psychological factors showed the high explanation power on their parenting stresses. 4) The father's parenting assistant affected the mother's parenting stresses only in the non employed mother.

Key Words : Infants, Parenting Stress,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